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일본의 사례

이한섭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근대 일본의 번역어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번역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메이지 시대의 주요 번역어를 통하여 번역어가 일본 근대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시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우리 근대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근대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본어의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고대어와 근대어로 나눌 때의 근대어이고, 이 경우 근대어는 12세기 이후의 일본어를 말한다. 또 하나의 근대어는 메이지 유신(1868)부터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의 일본어를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근대어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번역어란 무엇인가?

2.1. 번역어의 의미

일본에서 번역어란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말’, ‘외국어를 번역하기 위한 말’, ‘외국어 의미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遠藤好英 2007: 154) 등의 의미로 잘 쓰인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번역의 대상이 중국 고전인가 불교 경전인가 서양어 문장인가에 따라, 또 번역 방법이 직역한 것인지 의역한 것인지에 따라,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지 번안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용어면에서는 ‘번역어’가 보통 쓰이나 그 밖에 ‘번역어’를 줄여서 ‘역어(譯語)’라고도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번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번역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종류도 많다. 일본의 외국어 번역은 16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6세기 이전은 주로 중국어(한문)가 주요 번역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중국 고전은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고 학문적 교양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되기도 했으며 또 불교와 도교, 유교 등 경전은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주요 도서관을 조사해 보면 이들 고전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중국 고전을 읽었고 또 이를 번역·출판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6세기 이후가 되면 서구어도 접촉이 시작되어 중국의 한문과 함께 서구어 번역이 시작되었다. 서구어의 번역 대상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네덜란드어가 주 대상이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어, 불어, 독어 등으로 그 대상이 넓혀졌다. 1870년대 이후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서양 여러 나라에 유학하고 귀국 후 서양의 정치사상, 학술 제도와 관련된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수많은 번역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는 서양어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과 대조를 보이는 점이다. 성경이나 《천로역정》 등과 같은 번역서가 있었으므로 서양어 번역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들은 한역성서를 통한 번역이었거나 서양인이 번역한 것이어서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서양책 번역 부재를 들어 ‘번역 없는 번역된 근대’라고 말하기도 한다(양일모 2011: 24~25).

그러면 일본과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져 보자면 우리가 중화 문화권의 질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양과의 접촉이 늦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그래서 서양어 교육이 주변국보다 늦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근대 이후 일본의 서구어 번역이 활발했던 이유가 일본의 언어문화적인 특이한 전통과도 관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일본은 우리와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오래 전부터 한문으로 된 문헌을 읽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한문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있었다고 본다. 즉 우리는 한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음으로 읽고 뜻을 새기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한문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읽는 전통이 짙었다는 점이 다르다(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문을 읽는 것을 훈독(訓讀)이라 한다). 예를 들면 주자(朱子)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의 권학문(勸學問)에 나오는 ‘少年易老 學難成’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이로(少年易老)하고 학난성(學難成)이니라.’와 같이 한문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내려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しょうねん お がく な がた
 ‘少年は 老ひやすく、學は成り難し(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

려우니라.)'처럼 완전히 일본어로 번역하여 읽는다. 즉 모두 일본어로 번역하여 읽은 것이다. 이러한 독법의 습관은 19세기 중반 서구어를 접했을 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은 서양어를 바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옳다면 일본은 번역과 번역어 생성이 언어문화면에서 우리와 다르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2.2. 메이지 유신 이후 번역어를 만드는 방법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번역어를 만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종래에 존재하던 일본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civil이라는 영어 단어를 '조닌(町人)'으로 번역하는 방법이다. '町人'은 '에도 시대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지금 생각하면 civil의 번역어로 적합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으므로 기존에 있던 '町人'이 번역어로 선정된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서양어에 해당되는 일본어 어휘가 없을 경우 번역어를 새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번역어에는 아래에 예시하는 것처럼 일본에 없었던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honey-moon → 신혼여행(新婚旅行) philosophy → 철학(哲學)
 science → 과학(科學) exhibition → 전람회(展覽會)

두 번째 방법은 외국어(중국어)에서 차용하는 방법이다. 중국에는 일본보다 훨씬 먼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다수의 서양 서적이 이미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또 일본인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영·

중 사전류가 적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다. 메이지 시대 번역어를 만든 사람들은 대개 한문에 능통해 있었으므로 중국의 번역서와 영·중 사전류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중국의 번역어가 일본에 차용된 것이다. 다음에 드는 어휘는 모두 중국에서 차용한 번역어이다.

adventure → 모험(冒險) electricity → 전기(電氣)
love → 연애(戀愛) telegraph → 전신(電信)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중국 고전에 있는 단어에 의미만 새롭게 부여해서 사용하거나 일본어에 존재하던 유의어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전용(轉用)하는 방법이다. 다음 예는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될 것이다.

speech → 연설(演說) hygiene → 위생(衛生)
invention → 발명(發明) production → 생산(生產)

‘연설’은 불경에 나오는 말이고 ‘위생’은 장자(莊子)에 이미 나온 말이다. 또 ‘발명’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밝힌다거나 변명하다’라는 뜻이었고 ‘생산’은 ‘출산하다’라는 뜻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고전에 나오는 것이었거나 일본어에 존재하던 말로, 이들 단어에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서양어의 번역어로 만든 것들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진 번역어는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 일본 근대어의 성립과 번역어

3.1. 근대 번역어의 성립 배경

일본에서 근대어라 하면 보통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어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서양에 개국하여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 서양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부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를 철폐하여 사농공상 사민의 평등한 사회가 된 시기였다. 또 1872년 서양식 학제의 시작으로 의무 교육이 시작되고 전 국민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서양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양 서적이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새로운 학술 서적과 문학 작품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번역어는 교육의 일반화와 근대적 신문, 잡지 등 활자 매체의 등장으로 일반화되고 대중 속에 보급되었다.

일본 근대 번역어의 성립 배경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정부가 서양 문헌을 번역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원로원과 대장성 등 중앙 정부 기관에 번역국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서양의 역사와 군사·학술 제도, 산업과 관련된 문헌을 번역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번역된 서양 문헌은 엄청난 양에 달했다. 일본의 번역가 야마오카 요이치(山岡洋一)에 의하면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메이지 원년(1868)부터 15년(1882)까지 15년 동안에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은 1,410종에 달했다고 한다(山岡洋一 2004).

<표 1>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의 번역서 수

1868년	19
1869년	32
1870년	22
1871년	53
1872년	84
1873년	106
1874년	116
1875년	130
1876년	124
1877년	114
1878년	128
1879년	159
1880년	88
1881년	89
1882년	146
합계	1,410

메이지 시대 번역어는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번역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또 하나의 번역어의 성립 배경에는 서양어를 번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양에 유학하고 돌아온 일본인은 메이지 유신(1868 이전에 이미 160여 명에 달했고 1890년경까지는 3,000명을 넘었다 한다.¹⁾)

대표적인 유학생으로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사상가 니시 아마네(西周), 문학가 모리 오가이(森鷗外)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1863년부터 1864년까지 영국에 유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고 돌아왔으며 후일 일본 헌법을 만드는 데 주역을 담당하였다. 그는 한국 침략에 앞장을 섬으로써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나 일본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한때 일본 돈 천 원권(1963~1984)

1) 와타나베 미노루(渡辺實)(1988), 『近代日本海外留學生史』上·下.

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니시 아마네(西周)는 1862년부터 1965년까지 네덜란드에 유학하고 귀국 후 관료와 번역가, 문화인, 교육자로 활약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번역어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栗島紀子 1966: 86~87).

- 철학 용어: 관념(觀念), 시간(時間), 선천(先天), 원리(原理), 의무(義務), 이상(理想), 철학(哲學), 추상(抽象), 현상(現想), 후천(後天)
- 논리학 용어: 귀납법(歸納法), 긍정(肯定), 내포(內包), 명제(命題), 부정(否定), 연역법(演繹法), 외연(外延)
- 심리학 용어: 능력(能力), 본능(本能), 의식(意識), 정서(情緒), 직각(直覺)
- 기타: 과학(科學), 관능(官能), 관찰(觀察), 기술(技術), 예술(藝術), 인상(印象), 지질학(地質學), 충동(衝動)

이들 단어는 물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문학가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1922)는 독일 유학생 출신(1884~1888)으로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 초까지 소설가 겸 평론가, 번역가, 극작가로 활약하였고 본업인 군의(軍醫)로도 활약하였다(그는 일본 육군 군의로는 최고위인 군의총감(軍醫總監)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유학 중 익힌 독일어를 바탕으로 괴테의 파우스트(제1편)와 오스카 와일드(Oscar Fingal O'Flahertie Wills Wilde)의 희곡 '살로메(Salomé)' 등을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독일 철학자 하르트만(Eduard von Hartmann)의 미학책 《심미학강령(審美學綱領)》을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심미학(審美學)'은 모리 오가이가 'Aesthetik'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밖의 미학 용어에는 '관능'(官能)과 '육감'(肉感)이 있는데 이들은 현대 미학 용어 중에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의 문명 개화기에 일본인들에게 가장 영향이 컸던 책을 세 권

든다고 한다면 보통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1866~70)과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輿地志略)》(1870),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1870~71)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서양사정》의 초편에는 미국 독립 선언서의 번역이 실려 있고 외편(外編)은 영어판 《Political Economy》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여지지략》은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이 저술한 세계지리서를 번역한 것이며 《서국입지편》은 영국인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Self Help'를 번역한 것이다. 이와 같이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상당수가 서양 서적의 번역서였고 이들은 모두 서양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하여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2. 번역어의 역할

다음에는 번역어가 근대 일본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번역어가 일본어에 끼친 영향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번역어가 있음으로써 서양의 사상과 법률 제도, 문화 등을 번역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하여 서양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권리(權利)'와 '의무(義務)'와 같은 번역어가 없었다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로 '자유'와 '민권(民權)', '사회', '민족', '민주주의'와 같은 번역어가 없었다면 서양인의 기본적인 생각과 새로운 사상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어는 일본의 문명개화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역어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개념이나 일본에 없는 사물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메이지 시대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일본인들은 서양어 개념에 해당하는 일본어 어휘가 없어서 번역에 애를 먹었다. '사회'는 그 좋은 예로서 오늘날은 society를 간단히 '사회'라

고 번역하지만 18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society에 대응하는 개념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앞에서 언급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1872년 존 S. 밀의 《On Liberty》를 번역하여 《自由之理》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自由之理》에는 society라는 번역어 대신에 ‘정부(政府)’, ‘仲間連中’, ‘仲間’, ‘世俗’, ‘人民の會社(인민의 회사)’, ‘회사(會社)’ 등이 번역어로 나와 있다. ‘사회’라는 번역어가 아직 없었던 것이다. ‘연필’만 해도 그렇다. ‘연필’은 1877년부터 독일에서 수입된 새로운 필기구였는데 처음에는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목필(木筆)’, ‘석필(石筆)’이라 하였다. 1886년경 ‘미쓰비시 연필’이라는 회사가 국산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연필’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목필(木筆)’과 ‘석필(石筆)’을 누르고 굳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이 예는 서양의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번역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 주는 예라 하겠다.

4. 근대 일본의 번역어와 우리말 어휘와의 관련성

근대 일본어에서 번역된 어휘는 일본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이후 중국과 한국에도 전파되어 한자 문화권의 근대 어휘 형성에 관여한 것이다. 일본의 번역어는 개화기에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에 의하여 우리말에 도입되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수의 번역어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 일본 번역어들은 대부분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우리말 어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 원수를 나타내는 대통령(大統領)이라든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 명칭은 모두 일본의 번역어이다. 또 역사, 철학, 문학, 미학, 정치학, 식물학 등 학문 명칭도 일본에서 번역된 것들이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우리말 어휘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자료로 《철학자회(哲學字彙)》(1881, 1884)라는 책이 있다. 《철학자회》는 동경대학 철학 교수를 지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가 편찬한 책인데 근대 일본의 번역어 성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책 이름에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보기에는 철학 관련 용어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양의 주요 개념과 단어들을 들고 이에 해당되는 번역어를 일본어로 표시한 소형 대역사전으로 보아도 된다. 다카노 시게오(高野繁男)의 연구(高野繁男 2004: 87~108)를 참고로 하여 《철학자회》 초판에 수록된 번역어 중 현재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감각, 감수성, 개괄, 개념, 개연(蓋然), 개연성, 거부, 결합, 고정, 자본, 곤란, 과학, 긍정
- 나: 낙원, 내포
- 다: 독재정치, 동력, 동의(動議), 동화
- 마: 명제, 물질, 미각(味覺), 민법
- 바: 복음서, 분화(分化), 비율
- 사: 상대개념, 상호, 성과, 세례, 세포, 수동적, 수요(需要), 시각, 시기, 신학
- 아: 암시, 역설, 열심, 외연, 요소, 용해, 우울, 운동, 원리, 원소(元素), 원인, 원자론, 유기체, 유물론, 의무, 이상(理想), 이학(理學), 인력, 입헌 정치
- 자: 전제(前提), 전지(全知), 정조(情操), 존재, 지향(志向), 진화, 진화론, 질량
- 차: 창세기, 철학, 촉각, 충동
- 타: 타당, 타성, 통계학, 투표, 특질
- 파: 파생, 필요
- 하: 함수, 현실, 확정, 환원법, 회원

이들 어휘는 개화기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말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들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사물의 개념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휘라서 다른 말로 대체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5. 마치면서

이상 일본의 근대 번역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근대 번역어는 메이지 정부 주도하에 생성되었고 여기에는 서양에 유학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지면 관계상 일본 근대 번역어와 우리말 어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권보드래(2008), 연애의 현실성과 허구성: 한국 근대 연애 개념의 형성, 《문학, 사학, 철학》 14, 한국불교사연구소, 61~83.
- 김효전(2009), 《헌법》(한국개념서총서 3), 小花.
- 송민(2000), '大統領'의 출현, 《새국어생활》 10월 4호, 2000 겨울, 107~113.
- 양일모(2011), 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색과 논점, 《개념과 소통》 8, 한림과학원, 5~36.
- 大野透(1981), 翻譯考, 《國語學》 139, 國語學會(日本).
- 遠藤好英(2007), 譯語, 《日本語學研究事典》, 明治書院, 154~155.
- 龜井俊介(1994), 《近代日本の翻譯文化》, 中央公論社.
- 栗島紀子(1966), 譯語の研究:西周を中心に, 《日本文學》 27, 東京女子大學, 69~87.
- 高野繁男(2004), 《哲學字彙》의和製漢語: その語基の生成法・造語法,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報》 37,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
- 手島邦夫(2001), 西周の譯語の定着とその要因, 《國語學》 52-3, 國語學會, 9~29.
- 飛田良文他編(2007), 《日本語學研究事典》, 明治書院.
- 飛田良文(2002), 《明治生まれの日本語》, 淡交社.
- 丸山眞男·加藤周一(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 山岡洋一(2004), 翻譯についての斷章, 《翻譯通信》 22号.
- 吉田裕清(2004), 《翻譯語としての法律用語》, 中央大學出版部.
- 渡辺實(1988), 《近代日本海外留學生史》上·下, 講談社.
- 孫建軍(2005), 新漢語「大統領」の成立, 《或問》 10, 近代東西言語文化接觸研究會編, 1~13.